

‘설상 불모지’ 광주·전남, 하프파이프서 가능성 쫓다

동계체전 광주 김예나 과감한 기술 도전...메달 문턱까지 추격 전남, 크로스컨트리 조다운·바이애슬론 랍신 금메달 등 수확

‘설상 불모지’ 광주·전남 선수들이 스노보드 종목의 ‘꽃’ 하프파이프 무대에 도전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5일 강원도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도전의 무대를 펼쳤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모양의 구조물(파이프)에서 벽을 좌우로 오가며 공중으로 도약해 회전과 점프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으로, 공중 기술 난이도와 완성도, 착지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가린다.

하프파이프는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 가운데서도 시각적 화려함과 역동성이 뛰어나 인기 종목으로 꼽히며, 최근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중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여자 일반부에 출전한 광주 김예나(광주알파인스노보드스키클럽)는 54.33점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메달권까지 0.67점 차에 뒤진 아쉬운 결과였지만, 김예나는 2차 시기에선 난이도 높은 기술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출신인 김호준의 친누나인 그는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으며, 동계체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김민희(전남스키협회)는 37.00점으로 여자 일반부 12위를 기록했다.

처음엔 취미로 알파인 레이싱을 접한 김민희는

스노보드 선수로 활동한지 4년 차로, 이번 전국 대회 출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광주 박은학(광주알파인스노보드스키클럽)은 경기 전 훈련과정에서 왼쪽 발목 부상을 당했지만 부상 투혼으로 21위(4.66점)를 기록했다.

그는 부상에도 완주를 통해 투지를 보여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남겼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은이 부상으로 이번 체전에 불참했지만, 빅에어 메달리스트 유승은이 대회에 참가해 스노보드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유승은(성북고)은 이번 대회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경기 대표로 나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대회 첫날 전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의 성과를 냈다.

평창 알펜시아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진행된 크로스컨트리 여고부 클래식 5km에서 조다운(전남체고 1)이 16분03초5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다운에 이어 전다경(전남체고 2)이 2위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은메달의 성과를 냈다.

남자 초등부 클래식 2.5km에서는 화순초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찬우(6학년)가 9분17초, 김시윤(6학년)이 9분59초의 기록으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전남 김민희(전남스키협회)가 25일 강원도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공중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스키협회제공>

걸었다.

‘3관왕’에 도전하는 티모페이 랍신(전남도체육회)은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km에서

24분42초7에 질주를 끝내고 금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임준범(전남체고 2)과 이윤주(전남체중 1)는

각각 남고부 클래식 10km과 여중부 클래식 5k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평창=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이정후·김혜성 등 오사카 집결...WBC 대표팀 퍼즐 맞추다

3월 2~3일 평가전...5일부터 도쿄서 조별 리그

2026 월드컵예선(이하 WBC) 출격을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의 ‘완전체’ 결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한창 시범경기를 치르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WBC 사무국이 마련한 공식 평가전이 열리는 일본 오사카로 합류할 전망이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24일 일본 오사카와현 가데나의 가데나 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연습경기에서 앞서서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27일 오사카로 합류할 예정이고, 김혜성 선수만 MLB 시범경기를 한 경기 정도 더 뒀다고 해서 28일에 올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MLB 시범경기를 치르는 대표팀 선수는 주장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세이 윌트킴(휴스턴 애스트로스), 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 A 탈리도 머드헨즈), 데인 터닝(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트리플 A 터코마 레이니어스) 6명이다.

이정후와 김혜성은 대표팀에서 각각 주전 중견수와 2루수를 맡을 전망이다. 힘 있는 타자인 윌트킴과 존스는 각각 내야와 외야 한 자리를 소화한다.

터닝은 선발 혹은 선발 투수 바로 뒤에 등판해 긴 이닝을 던질 예정이며, 고우석은 불펜을 지킨다.

류 감독은 “현재 미국에 있는 선수들은 시범경기를 통해 수준 높은 선수들과 실전을 치르다가 합류하는 것이다. 좋은 컨디션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본에서) 시차만 적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표팀 본진은 지난 16일부터 오사카와에서 2차 캠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KBO리그 구단과 4차례 연습경기를 치렀고, 26일(삼성 라이온즈)과 27일(KT 위즈) 2경기를 남겨뒀다.

대표팀이 오사카와 캠프를 마치고 28일 오사카로 건너가면 WBC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뛸 3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사카에서는 다음 달 1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안방인 교세라돔에서 공식 훈련을 한다.

이후 2일에는 한신 타이거스, 3일에는 오릭스와 차례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오릭스전이 끝난 뒤에는 신칸센을 타고 대회가 열리는 도쿄에 입성한다. 그리고 호주(5일), 일본(7일), 대만(8일), 호주(9일)와 WBC C조 조별 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메달 포상금 111억원 지급

동계올림픽 참가국 중 최대 규모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국 이탈리아가 메달 보너스로 775만7000달러(약 111억60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5일 이번 대회 나라별 메달 포상금 실제 지급액을 보도했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21만3000달러, 은메달 10만6000달러, 동메달 7만1000달러 보너스를 약속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해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 775만7000달러를 주게 됐다.

이는 이번 대회 참가한 92개국 가운데 가장 큰 메달 보너스 규모다.

이탈리아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도 메달 보너스 총액 1070만달러를 지급해 참가국 가운데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

당시 개최국 프랑스는 메달 보너스를 총 940만달러 정도 풀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회 메달 보너스 지급 액수 2위는 미국으로 302만2500달러, 한국 돈으로 43억4000만원 정도를 선수들에게 나눠준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 232명은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20만달러 보너스를 받는다. 이는 메달 포상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이 조사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메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미국 외에 스위스(151만2000달러), 폴란드(123만8000달러) 4개국이다.

92개 참가국 가운데 포브스에 메달 포상금 내역을 확인해준 3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포브스의 메달 포상금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이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는 기존 평가점수 106점이 있기 때문에 월 100만원 상한액을 매달 받게 되며 평가 점수 상한인 110점을 넘는 1억1000만원을 일시 장려금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빅에어 간판’ 유승은, 하프파이프서 메달

동계체전 동메달...올림픽 메달리스트 클래스 증명

한국 스노보드 종목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유승은(사진)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주 종목이 아닌 하프파이프에서 얻은 값진 메달이다.

유승은은 25일 강원도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체전에서는 그의 주 종목인 빅에어가 편성되지 않는다.

빅에어는 국내 전문 선수층이 두껍지 않아 종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은은 “종목이 다르다 보니 사실 크게 준비한 것은 없었다. 하프파이프가 위험한 종목이다 보니 안전하게 내려오는 데 집중했다”며 “결과에 대해 크게 기쁘다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근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 스노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유승은은 “방학 중이라 학교를 안 가서 체감은 못했지만, SNS 디엠으로 친구들 연락이 많이 온다. (저뿐만 아니라) 빅에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노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가족을 꼽았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용평 스키장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보드를 탔고, 6학년 때 선수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수 생활의 원동력은 ‘기술의 성장’이었다.

유승은은 “기술을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다.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설상 종목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유승은은 현재 일본과 중국의 에어메트 시설을 오가며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 외에 해외 훈련 비용은 개인의 몫이다.



그는 “국내에는 전문 훈련 시설이 부족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대표팀 훈련은 2주 정도, 개인적으로는 한 달 가까이 체류하기도 한다”며 “종목이 지속되려면 선수 지원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동계체전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유승은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는 “앞으로 스노보드 선수로서 더 멋있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난이도 있는 기술)를 보여드리고 싶다. 올림픽에서 메달 색을 바꾸는 것도 목표다. 많이 지켜봐 달라”고 각오를 밝혔다.

/평창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
일시 : 2026-03-2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전통과 형상회 : 헤존
: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
일시 : 2026-02-27(금) ~ 2026-03-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